

## 道德經 78장의 翻譯에 관한 一考

이 종 상  
(공주대)

### 1. 서론

외국어로 쓰인 원전을 충실히 번역하는 것은 역자가 원전을 정확히 해석하여 새로운 언어로 풀어쓰는 것으로 원저자의 의도가 번역문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원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서로 다르게 된다. 노자가 2500여 년 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sup>1)</sup> 道德經은 우리나라의 독자와 시·공간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글로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道德經은 『郭店本』, 『帛書本』, 『王弼注本』 등 여러 가지 판본이 있고, 한비자의 『喻老』, 『解老』를 시작으로 수많은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王弼과 河上公의 주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이윤곡의 『醇言』, 박세당의 『道德經註解』 등의 주석이 있으며, 한글번역은 신현

---

1) 사기, 노장한비열전

중을 시작으로 많은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으나 역자에 따라서 번역문의 의미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노자의 道德經 78장<sup>2)</sup>은 柔弱의 유용성을 물에 빗대어 설명한 장으로 번역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그 유약의 유용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以其無以易之.’에 관한 번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노자의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서 임채우(王弼)는 ‘그것은 물보다 더 수월하게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석명(河上公)은 ‘물을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김홍경(帛書)은 ‘그 성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등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이석명(2003)은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주요 쟁점은 ‘易’자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용이하다’ 혹은 ‘쉽다’로 풀이하느냐, 아니면 ‘바꾸다’ 혹은 ‘대신하다’로 풀이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충렬(2004)은 “이렇게 설명<sup>3)</sup>을 하고도 역시 개운치 않은 것은 ‘無以’의 ‘無’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 열쇠가 풀리지 않아서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方法’의 뜻으로 보아 ‘無以’를 ‘無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번역에서 ‘以其無以易之.’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어떠한 해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

이 논문의 목적은 ‘以其無以易之.’에 관한 기존의 한문주석, 한글번역을 중심으로 이 문장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78장의 原文과 기존의 解釋

78장의 원문과 여러 가지 한글 번역문을 제시하고, 역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였으며, 그 이유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78장의 원문은 王弼

2) 章의 구분은 王弼注本을 따랐다.

3) 以의 출입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注本4)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天下莫柔弱於水<sup>5)</sup>, 而攻堅強者 莫之能勝, 以<sup>6)</sup>其無以易之<sup>7)</sup>. 弱之勝強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不祥 是爲<sup>8)</sup>天下王. 正言若反.

78장은 竹簡本에는 없고 帛書本에는 43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판본에 따라서 사용된 문자가 조금씩 다르다. 이 연구의 중심이 되는 ‘以其無以易之’는 판본에 따라서 ‘以’와 ‘也’의 출입에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앞부분의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莫之能勝.’에 대한 번역은 ‘세상(天下)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번역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以其無以易之’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易’의 의미와 ‘其’와 ‘之’가 가리키는 것의 차이 때문이다. 기존 번역의 유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易은 ‘바꾸다, 변화하다’, 之는 ‘물의 성질’로 해석하여 ‘그것은 물의 성질(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다.

- 권오현; 아무것도 그 본성을 바꿀 것이 없기 때문이다.
- 김충렬; 그래서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물의 성능을 뒤바꾸어 놓을 수 없다.
- 김형효; 그것은 물의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 김홍경; 그 성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帛書>9).
- 남충희; 무엇으로도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신현중; 그 부드러운 성질을 변치 않는 까닭이니라.

---

4) 임채우(2005: 309)  
 5) 河上公注本은 天下柔弱莫過於水로 되어 있으며, 成玄英도 이를 따르고 있다.  
 6) 帛書本에는 以가 있으나, 다른 本에는 없다. 王弼注本에도 以자가 없으나, 주석에는 ‘以, 用也. 其, 謂水也.’로 되어 있어 원래는 以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以자의 출입에 따른 해석의 차이에 관해서는 김충렬(2004, pp. 317-318)을 참조.  
 7) 帛書乙本에는 ‘之’ 다음에 ‘也’가 들어 있다.  
 8) 帛書本과 河上公注本에는 爲가 謂로 되어 있다.  
 9) < >안은 번역서 저본 또는 저자를 의미한다.

장기근·이석호; 아무것도 물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일순; 무엇으로도 물의 성질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易은 ‘대신하다’, 之는 ‘攻堅强者’로 해석하여 ‘그 무엇도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다.

김학목; 그러니 물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김학주; 그 무엇으로도 물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  
신동준; 세상에 그 무엇도 물의 유약을 활용하는 것과 바꿀 수 없다.  
오강남; 이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이기동; 아마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석명; 아무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네<帛書-王弼>  
임채우; 그것은 물보다 더 수월하게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王弼>  
최재목·박종연; 무엇도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陳鼓應>

셋째, 易은 ‘容易하다, 쉽다’, 之는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쉬운 것이 없다.’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석명; 무릇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물보다 쉬운 것은 없다.<河上公>

넷째, 易을 ‘바꾸다’, 之를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强者莫之能勝’으로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다.

최진석·정지욱;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成玄英10>

다섯째, 易을 ‘가볍게 여기다’, 之를 ‘水’ 또는 ‘굳세고 강한 것’으로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다.

오진탁; 물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憨山>

10) 言水能攻堅, 百王不易之事. 無爲破有, 萬代不刊之術(최진석, 정지욱: 721)

임헌규; 물은 굳세고 강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無以는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로 번역하였는데, 無以를 無爲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다.

기세춘; 무위로써 그것을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상의 번역에서 以其는 모두 앞에 있는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이때 易는 ‘가볍게 여기다’, 之는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한다.’라고 해석하여 번역하였다.

최진석;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치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以其無以易之’라는 여섯 글자로 된 문장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판본의 차이, 둘째 끊어 읽기의 차이, 셋째 한자 뜻풀이의 차이, 넷째 ‘其’와 ‘之’가 가리키는 것의 차이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첫째, 판본에 따른 ‘(以)其無以易之(也)’의 원문의 차이는 ‘以’와 ‘也’의 출입 여부이고, 다만 河上公注本에 ‘無以’가 ‘無能’으로 되어 있으나 판본의 차이로 인하여 문장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王弼注<sup>12)</sup>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其無以易之.

帛書甲<sup>13)</sup>

天下莫柔□□□, □□堅強者, 莫之能□也, 以其无□易□□。

帛書乙<sup>14)</sup>

11)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제시하였다.

12) 임채우(2005: 309)

13) 이석명(2003: 359)

14) 상계서(359)

天下莫柔弱於水, □□□□, □□□□, 以其無以易之也。

帛書甲과 乙의 문자 중 해독이 가능한 부분을 결합하면,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莫之能勝也<sup>15)</sup>, 以其無以易之也.’가 된다.

河上公注<sup>16)</sup>

天下柔弱莫<sup>過</sup>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sup>能</sup>易之

둘째, 기존의 역자들 모두 ‘以其無以易之’와 같이 끊어서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 읽기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번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는 한자의 뜻풀이의 차이인데, ‘以其無以易之’에 나오는 한자가 道德經에서 어떻게 쓰였으며 기존의 한글번역에서 어떻게 뜻풀이를 하였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以其는 道德經에서 7개의 장<sup>17)</sup>에서 12회<sup>18)</sup>가 나오는데 모두 앞에 나오는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以는 명사화된 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연결접속사로 ‘~때문에’의 뜻이며, 其는 지시대명사로 ‘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無以<sup>19)</sup>는 3개의 장에서 9회 나오는데, 모두 ‘~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無以 뒤에는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용언이 오는데,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하지 않다.’이고,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기존의 번역에서도 기세춘<sup>20)</sup>을 제외하고 ‘~할 수 없

15) 甲本에는 5글자, 乙本에는 4글자로 甲本에 ‘也’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6) 이석명(2005: 424-425)

17) 이하 단어의 출현 장과 횟수는 78장을 제외한 것이다.

18)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7장), 是以聖人 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耶?(7장), 以其終不自爲大, 故能成其大(34장), 夫何故? 以其生生之厚(50장), 夫何故? 以其無死地(50장), 民之難治 以其智多(65장), 江海所以 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66장), 是以 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66장), 聖人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71장),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75장),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75장), 民之輕死 以其求生之厚(75장).

19) 上德無爲 而無以爲(38장), 上仁爲之 而無以爲(38장), 天無以清 將恐裂(39장), 地無以寧 將恐發(39장), 神無以靈 將恐歇(39장), 谷無以盈 將恐竭(39장), 萬物無以生 將恐滅(39장), 侯王無以貴高 將恐蹶(39장),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75장)

다.’로 번역하고 있다. 易之에서 易21)는 4개의 장에서 10회 나오는 데 모두 쉽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78장에서는 ‘바꾸다’, ‘대신하다’, ‘쉽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易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더라도 之는 목적격 대명사로 보아야 하고, 易이 동사라면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뜻풀이의 차이에 의해서 이 문장에 관한 해석이 서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목적격대명사 之가 가리키는 것은 크게 ‘물(水)’, ‘물의 性質’, ‘攻堅强者’,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强者莫之能勝’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之가 무엇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번역하게 된 것은 원전과 끊어 읽기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고, 易과 之의 뜻풀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易과 之를 기존의 방식대로 어떻게 뜻풀이를 하여도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과 잘 통하지 않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번역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3. 기존 해석의 문제점

기존의 번역에서 以其는 ‘~ 때문이다’, 無以는 ‘~할 수 없다. ~이 아니다’로 대부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易과 之에 관한 해석은 역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이에 관한 기존의 주된 3가지의 해석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 
- 20) 기세춘은 無爲와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즉 ‘무위로써 그것을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 21) 難易相成(02장), 多易必多難(63장), 圖難於其易(63장), 天下難事必作於易(63장)는 쉬움이라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其安易持(64장), 其未兆易謀(64장), 其脆易泮(64장), 其微易散(64장), 吾言甚易知(70장), 甚易行(70장) 등은 형용사로 ‘~하는 것이 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1〉 기존 번역의 정리

以	其	無以	易	之	역자
그 이유는 ~ 때문이다.	水	~아니다	바꾸다	물의 성질	김홍경<帛書>
			대신하다	물	임채우<王弼>
			쉽다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	이석명<河上公>

그러면 78장의 앞부분의 문장을 ①天下莫柔弱於水, ②而攻堅強者莫之能勝, ③以其無以易之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以其를 ‘그것은~ 때문이다’라고 이유로 해석하면, ‘①이 성립하지만, ②또한 성립한다, ③그 이유는~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정리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표면적으로 상반되게 보이는 명제 ①과 ②가 동시에 성립하는데, 그 근거는 명제 ③이 성립하기 때문이다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기존의 해석을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易을 ‘바꾸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물의 부드럽고 유약한 성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③에서 물의 부드럽고 유약한 성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③은 곧 ①과 동일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가 된다. 이렇게 되면 ①과 ②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를 ③이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易을 대신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③에서 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



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②와 ③은 동일하게 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가 된다. 그 결과 ①과 ②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를 ③이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易을 '쉽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③에서 물보다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은 물이 최고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②와 ③은 동일하게 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가 된다. 그 결과 ①과 ②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를 ③이 설명하지 못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易의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끊어 읽기를 다르게 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4. 새로운 해석의 시도

78장의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은 물(水)이 柔弱하기 때문에 堅強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는 36장의 '柔弱勝剛強'으로 柔弱的 것이 剛強한 것을 이긴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에서 上善은 물과 같으며, 물의 善을 닮은 성질은 道와 가까운데, 그 이유로는 善을 닮은 물의 특성과 작용은 ㉠萬物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물의 3가지 특성과 작용 중에서 柔弱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성질은 ㉡에 해당될 것이

다. 즉, 8장의 夫唯不爭에 관한 河上公의 주석에서 ‘壅之則止 決之則行 聽從人也<막으면 멈추고 터주면 흘러가니, 남을 잘 따른다.>’에서와 같이 유약하기 때문에 정해진 형태가 없어 다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①天下莫柔弱於水, ②而攻堅強者莫之能勝, ③以其無以易之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존의 해석은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②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③그 이유는 ~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③은 ‘천하에서 물은 가장 유약하지만,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이 최고이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이어야 한다. 우선 이 문장에 있는 글자의 의미를 王弼과 河上公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王弼의 주석에서 以는 ‘以, 用也.’로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서 김학목(2000), 임채우(2005), 조현규(2011)는 ‘이는 사용하는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때의 用은 ‘쓸 用’이 아니고 ‘써 用<sup>22)</sup>’으로 ‘이는 ~때문이다<sup>23)</sup>’라고 번역하여야 하며, 기존의 대부분의 번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 번역하고 있다.

‘其’가 지칭하는 것<sup>24)</sup>은 王弼의 주석에서 ‘其, 謂水也.’와 같이 물이며, 河上公은 ‘其’에 관해서 주석을 하지 않았으나, ‘夫攻堅強者 無以易於水’라는 주석 부분에 ‘於水’가 있기 때문에 ‘其’가 지칭하는 것은 물(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其’는 물(水)를 의미하며 뒤에 오는 동사 ‘無’와 ‘易’의 주어라고 볼 수 있다.

‘無以’는 無와 以를 붙여서 ‘~하지 않다’ 또는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22) 민중서림편집국(2009: 1457)

23) 임채우(2005: 309)는 ‘以, 用也.’의 번역은 ‘이는 사용한다는 것이다.’라고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言用水之柔弱, 無物可以易之也.’에서는 用을 ‘때문임’이라고 번역하여 서로 모순된다.

24) 신동준(2007: 456)에 의하면 “‘以其無以易之’에 나오는 以其는 문장구조상 ‘易’의 목적어인 ‘之’를 의미한다. 이를 두고 王弼은 ‘用水之柔弱: 물의 유약함을 활용함’으로 본데 반해 하주는 ‘攻堅強者’로 보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以其에서 以는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이고, 其는 지시대명사이다. 또한 王弼注의 ‘用水之柔弱’을 ‘물의 유약함을 활용함’으로 해석하였으나, ‘물이 유약하기 때문이다.’로 해석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以其가 문장구조상 ‘易’의 목적어인 ‘之’를 의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대부분 해석하였으나, 易의 의미와 之가 지칭하는 것을 달리하여도 번역 상에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無와 以를 붙이지 않고 끊어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無’는 ‘有’의 반대로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반 타동사로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면 이는 완전한 문장으로써 ‘仁者無敵’과 같은 문장구조가 될 수 있다. 이때 ①天下莫柔弱於水, ②而攻堅强者莫之能勝에서 勝의 목적어는 水이기 때문에 동사 ‘無’의 주어는 水라고 볼 수 있으며, 목적어는 ①天下莫柔弱於水에서 물의 성질이 柔弱하기 때문에 ‘□이 없다’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러면 43장의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無有入無間(天下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天下에서 가장 굳은 것 속에 파고들 수 있는데, 形體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에도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에서 至柔한 것이 至堅한 것을 파고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無有한 것은 無間한 것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2〉 36장, 43장 및 78장의 비교

장	물의 특성	물(柔弱)의 작용	물의 특성과 작용의 연결
36장	柔弱	勝剛強	
43장	天下之至柔<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馳騁天下之至堅<天下에서 가장 굳은 것 속에 스며들 수 있다>	無有入無間<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78장	天下莫柔弱於水<천하에 물보다 더 유약한 것이 없다>	而攻堅强者莫之能勝<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이 최고이다>	以其無以易之<그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 형태를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이 至堅한 것을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물이 無有<sup>26)</sup>하기 때문

25) 필자의 번역임. 이석명(2005: 272-273)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파고들고 形體 없는 것이 틈새 없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로 번역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번역에서 병렬문으로 해석하였다.

26) 王弼은 ‘夫言無有者, 道也. 道無形質’라고 풀이하여 形體가 없다는 의미로 주석하

인데, 물이 無有하다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無의 목적어는 形으로 볼 수 있다. 無의 전후에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하면 ‘(水)無(形)’으로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는 ‘~때문에, ~까닭에, ~로 인하여<sup>27)</sup>’라는 의미를 가진 介詞(coverb)로서 ‘無+以’는 ‘~이 없기 때문에’가 된다. 易之에서 易을 ‘바꾸다’의 의미로 풀이를 하고, 之는 形을 받고, 易의 주어는 水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水易之(=形)로 된다. 따라서 以其無以易之의 문장을 생략된 단어를 채워 넣어 완성하면

以 其(=水)無形 以水易之(=形)

가 되어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그 형태를 바꾸기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王弼과 河上公의 ‘以其無以易之’에 관한 주석을 해석함으로써 無와 以의 끊어 읽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王弼의 주석은

‘以, 用也. 其, 謂水也. 言用水之柔弱, 無物可以易之也.’

이다. ‘無物’은 14장<sup>28)</sup>에서 ‘無狀之狀 無物之象’이라고 나오는데, 김충렬(2004: 187)은 이에 관해서 “道는 본래 無物이다. 無物이니 狀이나 象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無物은 변화 속에 있는 일련의 형상이어서, 無物이지만 無存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無物’을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無物可以易之也’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無物)은 그것(之=形)을 가히(可以) 바꿀(易)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 앞에서 제시한 번역의 의미와 동일해진다. 앞에서 제시한 王弼의 주석을 모두 번역하면,

였다.

27) 道德經에서 以가 ‘~때문에, ~까닭에, ~로 인하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은 常無欲 以觀其妙(01장),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05장), 執古之道 以御今之有(14장), 其名不去 以閔衆甫(21장), 殺人之衆 以哀悲泣之(31장), 天地相合 以降甘露(32장), 天得一 以清(39장), 損之又損 以至於無爲(48장) 등이 있다.

28)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恍惚.

‘以, 用也. 其, 謂水也. 言 用水之柔弱 無物可以易之也.’

‘이는 ~때문이다. 其는 물을 말한다. 물은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가 없어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가 된다.

河上公注本에는

‘以其無能易之’

로 이대신에 ‘能’으로 되어 있다. 이를 앞의 논리에 따라 ‘以其無 能易之’로 끊으면, ‘以其無’의 구절은 無의 목적어인 ‘形’이 생략된 것이 되고, ‘能易之’는 주어 ‘水’가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위 원문에서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以 其(=水)無形 水能易之(=形)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여 번역할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河上公의 주석은

‘夫攻堅強者 無以易於水’

라고 주석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석명(2005)은 ‘무릇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물(水)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해석한 논리대로 생략된 단어를 보충하면

‘夫攻堅強者 無以易(形)於水’

로 되는데, 여기서는 水의 앞에 ‘~보다’라는 의미의 於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易의 주어는 더 이상 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易의 주어는 ‘攻堅強者’, ‘無以’를 ‘...가 없다, ...할 수 없다.’, 易의 목적어는 形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무릇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 중에서 물보다 쉽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로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王弼과 河上公의 주석의 의미는 앞의 해석과 동일해지며, 그 뜻은 天下柔弱過於水를 ‘圓中則圓, 方中則方<네모가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으니, 굽거나 곧음이 형체에 따라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라고 河上公<sup>29)</sup>이 주석한 바와 같이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므로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5. 결어

道德經과 같이 오래 전에 쓰인 고전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여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문장 구조의 논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자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道德經 78장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하나, ‘以其無以易之’의 문장은 역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그 이유는 역자에 따라서 易의 의미와 之가 지칭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번역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어느 번역도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과 맞지 않는 데, 이것은 無와 以의 끊어 읽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번역에서 無以를 붙여 읽어 ‘~을 할 수 없다, ~이 아니다.’로 번역하였는데,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無와 以를 끊어 읽어 ‘無, 以(能)’으로 번역하여 ‘없다, 그래서’로 번역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78장 전체의 문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天下)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凌駕하는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물은 일정한 形態가 없어서 形態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天下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것에 따라서** 실행하지(行) 않는다. 그러므로 聖인이 ‘나라의 汚辱을 받은 자를 나라의(社稷)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불행을 끌어안은 자를 天下의 王이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른 말이 마치 반대로 하는 말과 같다.

29) 이석명(2005), p. 424.

## 참고문헌

- 『사기』  
 『한비자』  
 권오현 (2005) 『노자』,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기세춘 (2008) 『노자강의』, 서울: 바이북스.  
 김석진 · 신성수 (2005)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대학서림.  
 김용욱 (1999) 『노자와 21세기』, 서울: 돌베개.  
 김충열 (2004)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김학목 (2000)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王弼, 老子注).  
 김학주 (2000) 『노자』, 서울: 을유문화사.  
 김형호 (2004)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김홍경 (2003) 『노자-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서울: 들녘.  
 남충희 (2011) 『노자 도덕경』, 서울: 푸른나무.  
 민중서림편집국 (2009)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박종혁 (2011) 『신역 노자독본』, 서울: 학고사(余培林(1983), 新譯 老子讀本).  
 신동준 (2007) 『노자론』, 서울: 인간사랑.  
 신용득 (1996) 『신해 한문입문』, 서울: 홍신문화사.  
 신현중 (1957) 『국역 노자』, 서울: 청익출판사.  
 양세욱 옮김 (2005)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서울: 궁리(Edwin G. pulleyblank.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1995. Vancouver: The U of  
 British Columbia).  
 오강남 (1995) 『도덕경』, 서울: 현암사.  
 오진탁 (1990) 『憨山の 노자풀이』, 파주: 서광사(憨山, 老子道德經憨山解).  
 이기동 (2002) 『노자』, 서울: 동인서원.  
 이석명 (2003) 『백서 노자』, 서울: 청계.  
 이석명 (2005) 『노자도덕경 하상공장구』, 서울: 소명출판사(河上公章句, 道德  
 眞經注).  
 이현주 (2010) 『날개를 단 노자』, 서울: 두레(焦竑弱候, 老子翼).

- 임채우 (2005) 『왕필의 노자주』, 서울: 한길사(王弼, 老子注).
- 임현규 (2011) 『노자』, 서울: 책세상.
- 장기근·이석호 (1986) 『노자·장자』, 서울: 삼성출판사.
- 장일순 (2000) 『노자이야기』 서울: 다산글방.
- 조현규 (2011) 『왕필이 본 도덕경』, 서울: 새문사(王弼, 老子注)
- 최재목·박종연 (2008) 『陳鼓應이 풀이한 노자』,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陳  
鼓應(2000), 老子今註今譯及評價, 대만상무인서관).
- 최진석 (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 최진석, 정지욱 (2007) 『노자의소』, 서울: 소나무(成玄英, 老子義疏).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ao Te Ching's Chapter 78

Lee, Jong-Sa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any Korean translations of the former part(以其無以易之) of the Tao Te Ching' Chapter 78. Bu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meaning among the translations, so we can not decide which translation is corre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why the meanings of translations differ according to translators and to try to translate it newly.

The main reason why there is a difference in meaning among the translations is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a character '易'. They interpretate '易' as a meaning of 'change', 'ease' and 'replace'. But they take a sentence out of context, so all translations is illogical.

They all don't pause between 無 and 以, so they interpret '無以' as 'not' or 'can not'. Because it is of mistake not to pause 無 and 以, we should pause 無 and 以 to interpret '無以' correctly. When we pause '無' and '以' and supplement the ellipsis of subject and object, the interpretation of '無 以' is ~not having the form, so~.

In accordance with our result of study, we can translate the front part of Chapter 78 of the Tao Te Ching as follows; 'Nothing in the world is softer and weaker than water. Yet nothing is better at attacking the hard and strong. For water has no fixed form so that the form of water can be changed easily.

▶ Key Words: Chapter 78 of the Tao-Te-Ching, interpretation, translation, how to pause between phrases

이종상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개발학부 부교수

leejs@kongju.ac.kr

관심분야: 노장사상과 경제개발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